

# 함평·순천 산불 현장서 軍장병도 ‘구슬땀’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장병 70여 명이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야산 일대에서 산불 정리 작업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사진=31사단 제공)

이틀째 총력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전남 함평·순천 산불 현장에 국군 장병들이 손을 보탤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4일 오전 9시부터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진 함평군 대동면과 순천시 송광면 일대 야산

## 육군 31사단 산불 정리에 장병 170여 명 투입 헬기·차량 등 장비 지원도...“빠른 진화에 최선”

에 군 장병을 보내 산불 정리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 대동면 일대에는 군 장병 70여 명, 순천시 송광면 일원에는 100여 명이 투입돼 곳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일일이 끄고 있다.

또 군은 장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함평 산불 현장에는 군 작전 헬기 4대와 차량 8대가, 순천에는 헬기 4대와 차량 7대가 진화 작업에 동원됐다.

앞서 전날 낮 12시 19분께에는 함평군 대동면 한 양봉장 주변 야산에서 쓰레기 조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산불로 타거나 그을린 일야 475ha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주민 43

명이 대피했고 복분자 가공식품 공장 4개 동과 축사 2동, 비닐하우스 2동 등이 모두 탔다.

같은 날 오후 1시 2분께 순천시 송광면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현재까지 일야 약 150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89명도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은 함평 70%, 순천은 95%로 잠정 파악됐다.

31사단 관계자는 “산불 정리와 뒷불 감시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보탬 계획이다. 정해진 작전 시간은 없다”며 “빠른 진화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완도해경, 곰나무와 함께 GREEN 식목일 행사 개최

완도해양경찰서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완도 청해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GREEN 식목일”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경찰,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여수경찰서는 영취산 진달래 축제 기간동안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홍보 및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담양경찰, 자율방범대와 공동체 합동순찰 실시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지난 3일 저녁 8시부터 협력 치안을 통한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무안경찰, 모범운전자회 치안 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무안경찰서는 최근 김정완 서장, 경비교통과장, 모범운전자 회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2023년도 모범운전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광양소방, 직원 대상 생명 존중 교육 추진

광양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직강교육 시간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 광주 동부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실시

광주동부소방서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남 납치·살해’ 3인 얼굴 공개되나...올해 첫 사례 전망

## 경찰, 구속피의자 3명 신상공개심의위 소집 공개 결정하면 바로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중대 피해·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 등 기준

경찰이 5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35)씨, 연모(30)씨, 황모(36)씨 등 세 사람에게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가 최종 결정될 경우 이들은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흉악범이 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공개 결정 전 곧바로 이름·나이·얼굴 발표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알권리 등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타당하지 논의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 북반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에 이르렀고,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경찰은 당일 바로 이씨 등의 얼



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근거 마련 뒤 44명 신상공개... 최근 사례는 이기영

경찰청에 따르면, ‘강호순 사건’, ‘김길대 사건’ 등을 계기로 2010년 신상공개 근거가 마련된 뒤 현재까지 공개된 범죄자들은 총 44명이다.

그간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주요 범죄자들은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훈,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 경남 창원 무학산 살인사건 정덕규, 2016년 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2017년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강정임·심천우,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준 등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어머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진중,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마지막 신상공개는 지난해 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이었다.

이씨 등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올해 첫 사례가 된다.

이슬비기자

# 함평·순천산불 헬기진화 재개 中 영어듣기평가 중단 30분만

## 함평지역 중학교 7개교·순천지역 22개교 듣기 평가 실시

‘2023년도 제1회 중학 영어듣기 능력평가’로 중단됐던 전남 함평과 순천 지역 산불 대응 헬기 진화가 30여분만에 재개됐다.

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EBS 주관 ‘중학 영어듣기 평가’로 중단된 함평과 순천 산불 대응 헬기 진화가 재개됐다.

현재 함평군 대동면의 양봉장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응 3단계가 발령돼 산림청 헬기 등 11대가 투입돼 불을 끄고 있다.

또 순천지역에는 헬기 3대가 동원돼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20분동안 함평지역의 중학교 7개교와 순천지역 22개교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돼 헬기를 이용한 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헬기를 이용한 진화는 잠시 중단했지만 30여

분만에 재개했다”며 “현재 헬기가 함평과 순천지역 산불 발생지역을 비행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낮 12시 19분께 함평군 대동면 한 양봉장 주변 야산에서 쓰레기 조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산으로 번져 헬기 등이 투입돼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해규모는 복분자 가공식품 공장 4개동과 축사·비닐하우스, 산림 382ha가 불에 탔으며 마을 주민 43명이 연사무소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분께 순천시 송광면 한 야산에서 난 화재로 일야 12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81가구, 주민 89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산불을 피해 이동했다.

산림 당국은 함평과 순천지역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율은 60%대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여심과 빛꽃, 블랙이글스의 편대비행

의도 윤중로 상공을 편대비행하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4일 봄꽃축제가 한창인 서울 여